

감귤수출의 경제적 효과 및 수출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김 경 택*

목 차

- I. 서 론
- II. 감귤 생산동향
 - 1. 제주감귤의 생산동향
 - 2. 세계의 감귤류 생산동향
- III. 감귤수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1. 모형의 설정
 - 2. 자료 및 추정
 - 3. 추정결과 및 검증
- IV. 감귤의 수출촉진 전략
 - 1. 제주감귤의 해외시장 진출여건
 - 2. 제주감귤의 수출촉진 전략
- V. 결 론

I. 서 론

제주도의 감귤산업은 농산물 조수입의 60%내외를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기간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IMF 한파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되면서 감귤 소비 역시 둔화되고, 가공수요가 감소하면서 생산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 감귤산업의 잠재적인 생산능력은 국내수요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향후 감귤가격의 하락과 이에 따른 소득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1997년 7월 1일부터 오렌지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제주에 있어서 基幹産業인 감귤이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즉, 수입자유화로 인한 수요위축과 가격하락으로 생산능가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금년은 해질이 현상으로 76만톤 이상의 대풍작이 예상되면서 감귤산업의 파탄을 예고하고 있다.

*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제주도 농업발전의 전인적 역할을 하는 감귤산업의 침체는 제주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제주도 농업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한다.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품질의 고급화, 품종개량, 생산비 절감,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 해외시장 개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감귤의 수출은 외국의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내 감귤산업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다.

그동안 오렌지 수입량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감귤수출량은 1천톤내외로서 물량면에서 정체되고 그리고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 원인으로 생산농가의 수출인식 부족, 적극적인 시장개척의 미흡, 수출물류의 낙후, 수출경쟁력의 저위, 수출지원체계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제 IMF 시대를 맞으면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여건은 이전 보다 훨씬 좋아졌다. 따라서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지자체가 역량을 결집시킬수만 있다면 수출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제주감귤과 세계의 감귤류 생산 및 수출동향을 살펴 본 후에, 감귤수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겠다. 또한 위기에 처한 제주농업을 살리기 위한 제주감귤의 수출확대 방안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II. 감귤 생산동향

1. 제주감귤의 생산동향

〈표-1〉 재배농가, 재배면적, 생산량동향

년 도	재배농가(호)	재배면적(ha)	생산량(M/T)
1985	23,332	16,969	394,300
1986	23,685	16,959	333,100
1987	24,632	17,614	464,391
1988	24,892	17,829	412,660
1989	25,541	19,335	746,400
1990	25,616	19,414	492,700
1991	25,818	19,605	556,350
1992	29,541	21,727	718,700
1993	26,571	21,479	619,000
1994	26,596	21,448	548,945
1995	26,589	21,605	614,770
1996	36,055	25,802	479,980
1997	36,055	25,781	693,200

자료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97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1998.

제주감귤의 재배면적은 1985년의 16,969ha에서 1997년에 25,781ha로 지난 13년간 약 52%나 증가하였다. 이 면적은 제주도 총경지면적 56,803ha 의 45.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가당 재배면적은 0.8ha로서 제주도 농가의 호당 경지면적 1.43ha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동기간 동안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감귤재배농가수도 제주도 총농가수 39,820호의 90.5%를 차지하고 있다(〈표-1〉 참조).

감귤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살펴보면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89년의 kg당 400원대에서 1996년도의 기록적인 130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락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요인은 생산량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1996년의 경우 최근 들어 가장 적은 약 48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적정생산의 결과 조수입 6,079억 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더욱이 감귤 조수입은 제주도농업 총조수입 9,652억 원의 63%를 차지하고 있다(〈표-2〉 참조).

〈표-2〉 생산량, 가격, 조수입동향

년 도	생산량(M/T)	경락가격(원/kg)	조수입(억원)
1985	394,300	443	1,242
1986	333,100	545	1,416
1987	464,391	508	1,668
1988	412,660	694	2,106
1989	746,400	402	2,020
1990	492,700	895	3,151
1991	556,350	1,010	4,251
1992	718,700	512	2,623
1993	619,000	810	3,948
1994	548,945	1,208	5,521
1995	614,770	644	4,334
1996	479,980	1,352	6,079
1997	693,200	870	4,009

자료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97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1998.

1997년 12월말 현재 제주도 감귤농가의 평균재배면적은 0.8ha(2,400평)이고, 1ha(3,000평) 이하가 전체 감귤재배농가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2ha 이하가 전체의 94.5%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호당 평균재배면적은 전국의 1.3ha에 비해서도 대단히 낮은 수준이며, 이것은 감귤농업 기계화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표-3〉 참조).

〈표-3〉 규모별 재배농가 현황 (1997. 12. 31 현재)

계	1,500평 以下	1,501 - 3,000평	3,001 - 4,500평	4,501 - 6,000평	6,001 - 9,000평	9001평 以上
36,055	16,322(45.2%)	10,621(29.5%)	4,695(13.0%)	2,431(6.8%)	1,443(4.0%)	543(1.5%)

한편 1994년말 현재 제주도내 감귤저장고 수는 11,827동이며 그 저장능력은 228,178톤이다(<표-4>참조). 그리고 감귤생산 농가의 저장고 보유율은 44.5%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동당 저장능력은 서귀포시가 가장 크고, 제주시가 가장 작다. 저장고 보유율은 북제주군이 가장 높고, 서귀포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장을 통한 시기별 출하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장기술개발과 더불어 저장시설 확대지원이 필요하다.

<표-4> 감귤 저장고 현황(1994. 12. 31 현재)

(단위 : 톤, %)

구 분	감귤저장고			감귤생산 농가수	저장고 보유율	저장능력 (톤/저장고)
	저장고수	평 수	저장능력			
제 주 시	1,347	23,475	23,475	3,422	39.4	17.4
서귀포시	3,115	65,957	65,957	8,958	34.8	21.2
남제주군	4,464	86,843	86,848	8,814	50.6	19.5
북제주군	2,901	51,903	51,903	5,402	53.7	17.9
합 계	11,827	228,178	228,178	26,596	44.5	19.3

자료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94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1995.

생식용 감귤의 계통 출하 현황을 살펴보면 1994년 감협 및 단협을 통한 계통출하 비율은 생과용 전체 출하량의 39.8%밖에 되지 않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계통출하 비율은 연도별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7년산인 경우 계통출하 비율은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감귤만을 따로 독립시켜 보면 계통출하 비율이 1994년도에 약 55%에서 1997년도에 64.3%로 증가되었으며, 계통출하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표-5>참조).

<표-5> 생과용 감귤 계통처리 현황

구 분	1994년산		1995년산		1996년산		1997년산	
	수량(톤)	구성비(%)	수량(톤)	구성비(%)	수량(톤)	구성비(%)	수량(톤)	구성비(%)
농 협	183,513 (7,257)	39.8 (54.9)	266,781 (11,353)	50.8 (67.4)	234,629 (13,863)	53.5 (63.6)	376,326 (16,142)	60.9 (64.3)
일 반	277,107 (5,963)	60.2 (45.1)	258,517 (5,500)	49.2 (32.6)	203,728 (7,937)	46.5 (36.4)	241,421 (8,972)	39.1 (35.7)
계	460,620 (13,220)	100.0 (100.0)	525,298 (16,853)	100.0 (100.0)	438,357 (21,800)	100.0 (100.0)	617,747 (25,114)	100.0 (100.0)

자료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97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1998.

계통출하를 통한 생과용 감귤의 소비지역별 출하량을 보면 <표-6>과 같다. 6대도시의 계통

출하량 비율은 '95년, '96년, '97년 각각 70.0%, 70.1%, 64.0%로 6대도시에 감귤출하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도시의 형성으로 경기지역의 출하량이 95년 3.0%에서 97년에 9.4%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기타지역 중에서도 경남, 전북지역이 타지역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6〉 생과용 감귤의 소비지역별 계통출하량 (단위 : 톤, %)

구 분	1995년산		1996년산		1997년산		
	출하량	비율	출하량	비율	출하량	비율	
6 대 도 시	서울	73,827	28.9	68,637	31.1	92,524	25.7
	부산	24,001	9.4	18,913	8.6	28,646	8.0
	대구	34,239	13.4	27,250	12.3	46,436	12.9
	광주	19,310	7.6	16,214	7.3	28,350	7.9
	대전	17,677	6.9	15,240	6.9	19,294	5.4
	인천	9,357	3.7	8,525	3.9	14,430	4.0
	소 계	178,411	69.9	154,779	70.1	229,680	63.8
기 타 지 역	경기	7,595	3.0	7,659	3.5	34,021	9.4
	충북	6,101	2.4	4,796	2.2	9,708	2.7
	충남	4,781	1.9	4,035	1.8	7,381	2.1
	전북	15,480	6.1	11,079	5.0	19,631	5.5
	전남	2,639	1.0	3,400	1.6	4,376	1.2
	경북	8,368	3.3	7,015	3.2	8,568	2.4
	경남	22,809	8.9	17,602	8.0	28,153	7.8
	군남	1,044	0.4	757	0.3	977	0.3
	기 타	8,200	3.2	9,644	4.4	17,689	4.9
	소 계	77,017	30.1	65,987	29.9	130,504	35.7
합 계	255,428	100.0	220,766	100.0	360,184	100.0	

자료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97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1998.

1997년산 소비지역별 감귤 경락가격은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북, 서울, 강원, 경남 등에서 높게 형성되고 있다. 동년도에 소비지역별 농가 수취가격을 보면 경북, 서울, 강원, 경남 등의 순이다. 또한 경기, 경남, 강원, 경북 등의 순으로 유통비용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볼 때 경북 과 서울 지역이 계통출하의 효율이 제일 높음을 알 수 있다.

〈표-7〉 생과용 감귤의 소비지역별 계통출하 경락가격

(단위 : 원/15kg)

구 분	1996년산			1997년산			
	경락가격	수취가격	유통비용	경락가격	수취가격	유통비용	
6 대 도 시	서 울	21,166	17,986	3,180	10,227	7,343	2,884
	부 산	19,801	16,527	3,274	9,085	6,255	2,830
	대 구	19,320	16,085	3,235	9,356	6,445	2,911
	광 주	20,121	16,892	3,229	9,586	6,708	2,878
	대 전	19,871	16,629	3,242	9,340	6,457	2,883
	인 천	19,996	16,613	3,383	9,513	6,602	2,911
기 타 지 역	경 기	21,688	18,816	2,872	9,217	6,023	3,194
	강 원	19,897	16,539	3,358	10,145	7,179	2,966
	충 북	18,188	15,047	3,141	9,180	6,433	2,747
	충 남	19,624	16,316	3,308	9,197	6,256	2,941
	전 북	19,522	16,804	2,718	9,292	6,456	2,836
	전 남	19,440	16,143	3,297	9,222	6,400	2,822
	경 북	22,246	18,938	3,308	10,679	7,715	2,964
	경 남	20,014	16,646	3,368	9,990	6,946	3,044
제 주	18,930	17,440	1,490	9,726	7,179	2,547	
전국평균	20,279	17,129	3,150	9,660	6,748	2,912	

자료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97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1998.

제주감귤의 수출은 199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그 역사가 짧은 편이다. 더욱이 수출물량도 1천톤 정도로서 대단히 미미한 수준에 있다. 또한 1990년에서 1994년까지 5개년간 수출로 인한 손실액은 무려 10억 원에 달한다(〈표-8〉참조). 이렇게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데에는 수출 노하우의 부족, 신시장개척비용, 해외시장정보의 부족, 불평등 계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은 주로 캐나다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철저한 원인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감귤수출과 관련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수출손실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표-8〉 제주감귤 수출현황(농협)

년 도	수출물량	수출손실액	손 실 보 전 내 역			
			국 고	지방비	농협중앙회	수출조합
1990	162	84,245	-	-	84,245	-
1991	1,077	309,482	110,000	50,000	47,000	102,482
1992	1,060	0	-	-	-	-
1993	1,133	200,609	128,609	72,000	-	-
1994	976	396,292	235,110	96,000	65,182	-
1995	910					
1996	516					
1997	2,118					

자료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97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1998.

제주감귤의 수출은 '88년도에 시작되었지만 그 물량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 본격적인 수출은 '9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90년도에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된 이래 '96년도 까지 1천 톤 내외의 수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97년도부터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며, '98년도에 엔고와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1만톤 가까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전체 생산량에 대한 수출비중도 점점 높아져가는 추세이고, '97년도에는 그 비중이 0.5%에 이르렀다. 수출비중은 '98년도에는 2%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표-9>참조).

<표-15> 연도별 감귤수출

(단위 : M/T, %)

연 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수출량	4 (0.00)	75 (0.01)	189 (0.03)	1,091 (0.20)	1,072 (0.15)	1,326 (0.21)	1,028 (0.19)	1,055 (0.17)	801 (0.17)	3,381 (0.49)

()안은 전체 생산량에 대한 수출비중

'97년 말에 불어닥친 IMF한파로 환율이 상승함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면서 미국, 캐나다, 러시아,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97년 수출량은 전년도에 비해 4.2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표-10>참조).

<표-10> '97년도 국별 감귤수출 실적

(단위 : M/T, %)

국 가	캐나다	미 국	러시아	일 본	싱가포르	홍 콩	괌	계
수출량	911 (26.9)	1,183 (35.0)	1,043 (30.8)	85 (2.5)	99 (2.9)	51 (1.5)	9 (0.3)	3,381 (100.0)

()안은 국별 구성비입

2. 세계의 감귤류 생산동향

① 브라질의 생산동향

브라질은 오렌지주스의 최대수출국이다. 이 나라의 오렌지 생산은 이 나라가 주요공급국인 FCOJ(냉동농축오렌지주스)의 미국수요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

브라질의 오렌지 농업은 지난 30년간의 호황을 벗어나 '90년 이후 세계적인 오렌지 과잉공급으로 침체상태에 빠져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최고로 오렌지 생산량이 많은 나라이다. 미국은 1994-95 시즌에 1,600만톤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의 감귤을 생산하였다. 물론 미국의 감귤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플로리다 지방의 오렌지 농원이 한해가 적은 지역으로 이동하여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브라질의 경우는 미국 플로리다 지방의 한해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가격이 폭등하자 식부면적을 계속확대시켜 현재 100만ha를 초월하고 있다. 따라서 1993-94 시즌에는 미국과 브라질 두나라가 모두 풍작을 거두었으며, 그 결과

과 오렌지 및 오렌지과즙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다.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렌지가 전부 과즙용은 아니다. 생식용의 경우 과즙용과는 달리 맛과 외관이 좋으며, 생산비도 과즙용보다 더 비싸지만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95 시즌에 브라질의 오렌지 생산량은 세계 최대인 1,644만 톤이며, 이 중 가공용이 약 63%인 1,030만 톤이다. 생과 소비량은 36.9%인 607만 톤으로 전년도에 생과 소비량에 비해 약 41%나 증가하였다. <표-11>은 가공용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반면에 생과용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량은 9만5천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37.5%나 감소하였다. 1993/94시즌의 경우 미국과 브라질의 풍작으로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전년도에 비해 62%나 늘어난 15만 2천톤을 수출하고도 수출액은 전년도 보다 훨씬 적었다. 이렇게 볼 때 오렌지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자 피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향후 오렌지의 생과 수출은 외관이 나쁘고 생식용 품종이 적고, 선포장, 수송수단 등의 정비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당장 증가할 기미는 없다.

농축과즙의 수출은 1993년에 105만 톤으로 유럽에 58%, 미국에 29%, 일본에 5%가 수출되었다. 그리고 수출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44% 떨어진 \$657(일본으로의 수출가격은 \$528)로 급락하였다.

<표-11> 브라질의 오렌지 생산 및 소비동향

(단위 : 천 톤)

구 분	생산량	수출량	가공용	생과 소비량
1991/92	16,327	95	11,885(73%)	4,347
1992/93	15,778	94	10,987(70%)	4,697
1993/94	14,818	152	10,346(70%)	4,320
1994/95	16,436	95	10,269(63%)	6,072

()안은 가공용대 생산량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 USDA, 「World Horticultural Trade & U.S. Export Opportunities」, July 1995.

브라질의 경우 '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서 식부면적을 계속 확대해 왔기 때문에 식부한 면적이 '96년 말까지 매년 1,000만 그루씩 생산수령에 달하기 때문에 오렌지 생산공급과잉상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산 생식용 오렌지는 생산기술이 떨어져 외관만 보고서 브라질산 오렌지 생과를 수입 승인하지 않는 나라가 많았기 때문에 수출 실적은 생산량에 비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② 미국의 생산동향

감귤류가 수입개방이되면서 우리가 제일 우려해야할 상대국은 미국이다. 브라질의 경우 생산량의 70%이상이 과즙용이기 때문에 생과용은 미국산 등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대국이다.

〈표-12〉 미국의 감귤류 생산동향

구 분		수확면적 (Acres)	생산량 (천 톤)	생식용 (천 톤)	가공용 (천 톤)	생산가액 (천 달러)
아 리 조 나	1992-93	37,700	340	226	114	65,475
	1993-94	37,600	364	237	127	79,184
	1994-95	35,400	248	195	53	63,518
캘 리 포 니 아	1992-93	255,900	3,662	2,460	1,202	745,112
	1993-94	256,500	3,569	2,353	1,216	745,817
	1994-95	263,600	3,462	2,303	1,159	769,526
플 로 리 다	1992-93	639,600	11,175	1,704	9,471	1,323,574
	1993-94	665,800	10,484	1,643	8,841	1,400,151
	1994-95	731,700	12,050	1,639	10,411	1,402,547
텍 사 스	1992-93	14,510	97	75	22	17,012
	1993-94	18,210	144	108	36	20,263
미 국	1992-93	947,410	15,274	4,465	10,809	2,151,173
	1993-94	978,110	14,561	4,341	10,220	2,245,415
	1994-95	1,052,630	15,990	4,295	11,695	2,255,958

자료 : U.S. Dept. of Agriculture, 「Citrus Fruits-1995 Summary」, Sep. 1995.

1994-95시즌의 감귤 생산량은 약 1,600만톤이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것이고, 1992-93시즌과 비교할 때 약 5%나 증가한 것이다(〈표-18〉참조). 1994-95시즌의 생산량은 오렌지 재배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량이며, 이것은 플로리다주의 기록적인 오렌지 생산량과 그레이프푸르트 생산량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플로리다주의 감귤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18%나 증가하였다. 플로리다에서의 단위당 수확량의 증가와 수확면적의 증가가 이러한 기록적인 생산량을 유도하였다. 반면 캘리포니아에서의 오렌지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4%나 늘어났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재배면적은 3%나 증가하였지만 단위당 수확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의 네이블 오렌지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4%나 감소하였다. 텍사스에서의 오렌지 및 그레이프푸르트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1989년 寒害 피해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994-95시즌 아리조나에서의 오렌지 및 그레이프푸르트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1994-95시즌에 미국 전체 감귤 생산의 75%를 플로리다에서 생산하였으며, 22%는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하였다. 또한 아리조나에서 2% 그리고 텍사스에서 나머지 1%를 생산하였다.

1994-95시즌에 생산한 감귤의 가치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즉, 선과장수취가격 (packinghouse-door equivalent) 기준으로 \$22억 6천만이다. 레몬과 탠저린을 제외한 모든 감귤류가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을 가져왔다. 실제로 네이블 오렌지 가격은 상자당 \$5.26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6%나 하락하였다. 발렌시아 오렌지도 박스당 \$6.44로 전년도에 비해 가격이 1%나 하락하였다. 그레이프푸르트의 경우 박스당 \$4.18로 15%나 하락하였다. 레몬의 가격도 박스당 \$11.02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11%나 하락 하였다.

1994년도의 수출액 및 수출물량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표 13>은 미국의 주요한 해외시장과 수출액 및 수출물량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시장에서의 판매는 각 시장에서의 고객이 선호하는 종류의 감귤이 이용가능성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1994년도에 미국의 생식용 감귤의 수출은 기록적인 118만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감귤류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은 일본과 홍콩이다. 유럽은 그레이프푸르트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감귤류 수출이 해외시장에서 최근 들어 성공적일 수 있는 것은 개선된 환율, 공격적인 수출촉진활동 그리고 해외시장에서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기 때문이다.

네이블 오렌지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23%나 올랐으며, 그 물량은 3% 증가하였다. 이렇게 네이블 오렌지 가격이 높은 것은 시즌의 시작과 끝 무렵에 해외시장에서의 수요가 많았고, 이때 수출용 상품의 공급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균 FOB가격이 약 20%나 상승하였다.

한편 1994년도 발렌시아 오렌지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2%나 낮아졌으며, 수출물량 또한 2%쯤 감소하였다. 평균 FOB가격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수출물량의 하락은 품질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오렌지를 수확했기 때문이다.

레몬의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약 2% 낮아졌다. 연도 초에 해외시장에서의 재고가 많아서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름중엔, 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정도이었다. 이러한 초과수요는 평균 FOB가격의 2%상승효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 레몬판매량이 4% 감소하였다.

그레이프푸르트의 수출물량은 평균 FOB가격의 7% 상승으로 인해 12%나 감소하였다. 이것은 플로리다에서의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즌말에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왔으며, 수출액은 6%나 작아졌다.

탠저린의 수출물량은 전년도에 비해 118%나 증가하였다. 전년도는 혹독한 날씨 영향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생산하였다. 따라서 1993년도에는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었지만 1994년도에는 작황이 좋아서 품질 높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작황이 좋은 관계로 평균 FOB가격은 18%나 하락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탠저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더 이상의 가격하락을 막을 수가 있었다. 따라서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79%나 늘어났다.

〈표-13〉 미국의 수출 현황

구 분	1993년도		1994년도	
	수 량 (천 Cartons)	금 액	수 량	금 액
일 본	12,456	\$202,532	11,522	\$193,918
홍 콩	6,371	60,403	6,207	62,199
싱가폴/말레이시아	1,528	13,141	1,709	15,601
Pacific-Other	1,058	10,222	1,394	13,563
유 럽	134	2,000	279	3,144
기 타	406	5,300	360	4,290
계	21,953	\$293,598	21,471	\$292,715

〈표-14〉 미국의 감귤 수입동향

구 분	Mandarines ¹⁾		Tangerines ²⁾	
	수량(톤)	금 액	수량(톤)	금 액
1989	635	\$802,538(\$1.26)	2,871	\$2,135,935(\$0.74)
1990	989	\$1,700,808(\$1.72)	7,016	\$5,634,832(\$0.80)
1991	916	\$1,864,033(\$2.03)	4,542	\$4,145,655(\$0.91)
1992	615	\$1,315,285(\$2.14)	5,967	\$7,566,778(\$1.27)
1993	648	\$1,089,105(\$1.68)	4,392	\$5,046,748(\$1.15)
1994	314	\$634,372(\$2.02)	12,744	\$14,149,281(\$1.11)

¹⁾일본산 온주밀감임. ²⁾스페인산 클레멘타인임.

()안은 kg당 단가임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온주밀감, 그리고 스페인으로부터 온주밀감과 비슷한 품종인 클레멘타인을 수입해 왔다.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은 최근 6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볼 때 1990년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물량이 점차 감소하여 왔으며, 1994년도에는 314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렇게 수입물량이 감소한 이유는 〈표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kg당 수입단가가 1989년도에 \$1.26에서 1994년도에 \$2.02로 급격히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스페인산 클레멘타인의 수입은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2.9배나 수입물량이 늘어났다. 즉, 1993년도에는 4,392톤을 수입하였으며, 1994년도에는 12,744톤을 수입하였다. 스페인산의 경우 수입단가를 보면 완만한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수입단가 측면에서 볼 때 일본산이 스페인산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페인산의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에 일본산의 수입은 감소하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시에 수출물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수출단가를 여하히 낮출 수 있느냐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③ 중국의 감귤생산 동향

중국의 감귤생산량은 국내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1980년대에는 1970년대와 비교할 때 4배나 증가하였다. 현재의 감귤식재본수로 볼 때 1990년대에는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감귤류 생산은 1988년 256만톤에서 1995년 638만톤으로 예상되어 최근 6년간 생산량이 약 2.5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표-15〉참조).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되어서 2000년에는 1,200만톤을 넘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배면적도 1990년 87만 ha에서 2000년에는 100만 ha로 전망하고 있다(〈표-16〉참조).

〈표-15〉 중국의 연도별 감귤류 생산동향

구 분	1988	1989	1990	1993	1994	1995
감 귤 류	2,560	4,561	4,855	5,971	6,110	6,380 ¹⁾

¹⁾예상생산량임

자료 : USDA, 「World Horticultural Trade & U.S. Export Opportunities」, July 1995.

〈표-16〉 중국의 감귤류 생산 전망

구 분	1986	1990	1993	2000
재배면적(만ha)	72	87	112	100
생산량(만톤)	255	480	597	1,200

자료 : 서귀포시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정보」 통권 제26호, 1995. 11.

1993년 현재 중국의 감귤재배면적은 112만 정보에 생산량은 597만톤으로서 재배면적기준으로는 세계 제 1위이지만 생산량 기준으로는 제3위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현재 1ha당 수확량이 5.3M/T로서 한국의 약 34M/T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단위당 수확량이 낮은 이유는 품종이나 관리기술이 낙후되어 있으며, 과수원이 거의 방임 상태에 가깝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생산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7〉 중국의 감귤 수출동향

단위 : 천 톤

구 분	1992	1993	1994	1995
감귤류	47	61	118	150 ¹⁾

¹⁾예상 수출물량임.

자료 : USDA, 「World Horticultural Trade & U.S. Export Opportunities」, July 1995.

중국은 최근에 들어서 감귤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1992년에 약 4만 7천톤을 그리고 199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7%나 증가한 15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예측된다(〈표-17〉참조). 주요한 수출대상국으로는 러시아,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이다. 수출단가는 톤당 \$467로서 일본산이나 한국산에 비해 절반 값도 안되는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④ 스페인의 감귤생산 동향

스페인인 중국 다음인 세계 제 4위의 감귤 생산국이며, 유럽 최고의 생산국가이다. 스페인의 감귤류 생산량은 1995년도에 5백만톤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중 클레멘타인이 175만 톤으로 약 35%를 점하고 있다.

〈표-18〉에서 보는바와 같이 스페인은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즉, 1994년도에는 생산량의 약 58%인 275만 톤을 수출하였으며, 1995년도에도 생산량의 약 56%인 280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클레멘타인의 경우 생산량의 약 68%인 119만 톤을 1995년도에 수출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클레멘타인은 해외시장에서 제주감귤과 경쟁이 되고있는 상품이다. 제주감귤의 연간 수출물량이 1천 톤 내외인 것에 비하면 스페인에서 수출하는 클레멘타인의 량은 우리의 수출규모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다.

전체 생산량중에서 가공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정도이며, 생과용 내수시장 소비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30% 정도이다.

〈표-18〉 스페인의 감귤류 생산 및 소비 동향

단위 : 천 톤

구 분	생산량	수출물량	가공물량	생과용 소비량
1992	4,559(1,340)	2,466 (905)	645(202)	1,448(233)
1993	5,206(1,521)	2,950(1,150)	628(100)	1,631(271)
1994	4,755(1,622)	2,747(1,115)	667(172)	1,344(335)
1995 ¹⁾	5,030(1,751)	2,800(1,190)	656(180)	1,577(381)

¹⁾예측 수량임. ()안은 탠저린(클레멘타인)의 수량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 USDA, 「World Horticultural Trade & U.S. Export Opportunities」, July 1995.

Ⅲ. 감귤수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형의 설정

어느 일정 시점에 있어서 한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출하량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격을 종속변수로하고 해당상품의 출하량이나 관련상품의 출하량, 기타 관련변수를 독립변수로하는 방정식이 가격신축성 함수이다.

가격신축성 함수의 일반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_a = f(Q_a, Q_b, Y)$$

여기서 P_a 는 a상품의 가격을 나타내고, Q_a 는 a상품의 출하량을 나타내며, Q_b 는 b상품의 출하량을, 그리고 Y는 1인당 GNP를 나타낸다.

〈표-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의 구체적인 함수형태는 선형(linear)과 전대수(log-log)형, 반대수(semi-log)형, 역지수(inverse), 역대수(log inverse), 역전대수(log-log inverse)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단일방정식의 형태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단일방정식에 의한 분석방법은 주로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등의 계산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단일방정식의 경우는 방정식의 해를 하나 하나 추정하여 계산한다.

〈표-19〉 단일방정식의 형태와 함수식

방정식 형태	함 수 식
선형(linear)	$P = \alpha_0 + \alpha_1 Q + \alpha_2 Y$
전대수(log-log)	$\ln P = \alpha_0 + \alpha_1 \ln Q + \alpha_2 Y$
반대수(semi-log)	$P = \alpha_0 + \alpha_1 \ln Q + \alpha_2 Y$
역지수(inverse)	$P = \alpha_0 + \alpha_1 / Q + \alpha_2 / Y$
역대수(log inverse)	$\ln P = \alpha_0 + \alpha_1 / Q + \alpha_2 / Y$
역전대수(log-log inverse)	$\ln P = \alpha_0 + \alpha_1 / Q + \alpha_2 / \ln Q + \alpha_3 / Y + \alpha_4 / \ln Y$

2. 자료 및 추정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이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생과용 감귤 공급량은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감귤의 실질 농가수취가격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계자료중 GNP 디플레이터와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하였다. 그리고 1인당 실질GNP는 경상가격GNP에 GN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1990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하였다. 가격신축성함수의 추정에는 1980년에서 1996년까지의 17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최소자승추정방법(OLS)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여러 가지 함수형태 중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함수는 선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서는 선형식만 소개하겠다.

〈표-20〉 생과공급량, 가격, GNP

구 분	생과공급량 (M/T)	실질농가수취가격 (원/kg)	실질GNP (\$)
1980	154,046	471	3,171
1981	205,922	431	2,944
1982	264,620	407	2,900
1983	295,311	298	3,033
1984	222,332	640	3,124
1985	313,041	426	3,059
1986	278,808	518	3,344
1987	372,581	411	3,988
1988	329,694	631	4,977
1989	549,914	297	5,732
1990	354,175	719	5,883
1991	433,911	734	6,137
1992	528,861	289	5,978
1993	520,886	519	6,099
1994	460,620	774	6,533
1995	525,298	498	7,326
1996	438,357	808	7,239

자료 : 제주농협지역본부, 「'97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1998.

한국은행, 인터넷사이트(<http://www.bok.or.kr/kobank/owa/stats3>), 1999. 2. 5.

3. 추정결과 및 검정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에 1980년에서 1996년까지의 시계열자료인 〈표-20〉을 이용하여 제주 감귤의 가격신축성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 = 407 - 0.00176Q + 0.159Y$$

(4.92) (-4.35) (5.34)

$$R^2 = 67.1\%$$

() 내는 t치임.

여기서 P = 감귤의 유통년도 실질농가수취가격

Q = 감귤의 총 생과용 공급량

Y = 1인당 실질GNP

위 식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 관계로 언급해 볼 수 있다. 우선 감귤의 실질농가수취가격과

생과용 감귤 출하량과의 관계이며, 두 번째는 농가수취가격과 1인당 실질GNP간의 관계이다. 위 식에서 가격신축성은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상품의 출하량 또는 관련변수가 1단위 변화할 경우 이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 수취가격의 변동을 말한다.

상기 식을 추정한 결과에서 세 추정치의 t값은 4.92, 5.34, 그리고 -4.45로서 1%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믿을 수 있다. 결정계수는 0.67로 이것이 다소 적게 나온 것은 대체재의 공급량 변수를 생략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변수를 생략한 이유는 감귤과 대체재 관계에 있는 사과와 생과용 공급량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생과용 공급량의 계수 추정치는 -0.00176으로 공급량과 가격이 역관계를 가진다는 경제이론에도 부합된다. 그리고 1인당 실질GNP의 계수 추정치도 0.159로서 국민소득과 가격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경제이론에 부합된다.

추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수출규모에 따른 농가수취가격의 변화 추세를 산출하였다. 수출규모에 따른 농가수취가격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 도내 감귤생산량이 어느 정도이며, 그중 생과공급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한다. 제주도에서는 적정생산량을 60만톤으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내 적정 감귤생산량이 60만톤정도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했다. 그리고 감귤생산량 중 생과공급량은 전체 감귤생산량의 약 83%로 계산하였다. 이것은 최근 6개년간 상품용으로 출하된 감귤의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평균한 것이다.

〈표-21〉 수출량에 따른 농가수취가격의 변화

수출량	실질 농가수취가격의 변화(원/kg)			
	450천톤	500천톤	550천톤	630천톤
0	654	566	478	337
5,000	663	575	487	346
10,000	672	584	496	355
2,0000	689	601	513	372
3,0000	707	619	531	390

감귤 생과공급량 규모를 45만톤, 50만톤, 55만톤, 그리고 60만톤으로 가정하고 여기서 수출물량을 5천톤, 1만톤, 2만톤, 그리고 3만톤으로 가정했을 때 실질 농가수취가격의 변화를 산출하였다(〈표-21〉참조). 생과공급량이 45만톤(실제 생산량은 54만톤)일 때 수출량에 따른 농가수취가격은 654원, 663원, 672원, 689원, 그리고 707원이다. 생과공급량이 50만톤(실제 생산량은 약 60만톤)일 때 수출량에 따른 농가수취가격은 566원, 575원, 584원, 601원, 그리고 619원이다. 생과공급량이 55만톤(실제 생산량은 약 66만톤)일 때 수출량에 따른 농가수취가격은 478원, 487원, 496원, 513원, 그리고 531원이다. 생과공급량이 63만톤(실제 생산량은 76만톤)일 때 수출량에 따른 농가수취가격은 337원, 346원, 355원, 372원, 그리고 390원이다.

금년도에 감귤은 사상 최대의 풍작과 함께 약 76만톤 내외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금년에 76만톤을 생산할 경우 생과공급량은 약 63만톤 정도가 될 것이고, 수출을 1만톤

할 경우에 수출을 전허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할 때 농가수취가격에서 kg당 약 18원이 늘어난다. 이것은 전체농가에게 113억원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다. 2만톤을 수출한다면 kg당 농가수취가격이 35원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것은 전체농가에게 221억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있다. 3만톤의 경우 53원의 가격상승효과와 함께 334억원의 소득창출효과가 있다.

IV. 감귤의 수출촉진 전략

1. 제주감귤의 해외시장 진출여건

1) 가격 및 품질 경쟁력

만다린의 경우 일본산에 비해 가격 면에서 우세하지만 품질 면에서 열위에 있다. 중국산과는 가격 면에서 열세이지만 품질 면에서 제주산이 우위에 있다. 일본산은 고가품이고, 제주산은 중저가 품이며 중국산은 저가품이란 인식이 현재까지 진출해있는 해외시장에서 보편화 되어 있다.

2) 유통망

90년도부터 시작된 수출은 8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아직 해외유통망 장악력이 미약한 실정이다.

3) 제주산에 대한 인식

캐나다, 러시아 및 미국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2. 제주감귤의 수출촉진 전략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촉진활동이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의 경우도 자국의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품목별로 다각적인 해외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 해외무역청에 의하면 미국과일 수출증가의 원인을 고급과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과감한 수출 촉진활동, 기술 개발 및 수송개선, 수입국의 수입제한 축소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 중에서 수출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출 촉진활동임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제주감귤의 수출 촉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철저한 시장조사 및 홍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출 초기단계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살아있는 현지시장정보의 수집이다. 수출하려고 하는 대상국가의 소비자계층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소비자 기호와 경쟁관계 등을 검토하여

시장 전망 또는 시장확대 가능성을 타진한 후에 판매 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국가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 전시회에 제주산 감귤을 출품하고, 해당국가에서 청과업을 경영하는 한국 교포나 해당국의 시민들을 초청하여 제주산 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해당국의 슈퍼마켓에서 감귤을 시식하는 코너 등을 이용한다. 또한 수출되는 제주산 감귤은 「한국 감귤(Korean Mandarin)」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2) 안정적인 물량 생산공급을 위한 대책이 서야 한다.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현재 6개 단지를 조성하여 약 5,000톤 정도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향후 미국 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수출물량의 공급을 위해 읍이나 면 단위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3) 수출창구를 일원화하고 수입업체는 다변화 시켜야 한다.

과거 캐나다로의 감귤수출은 수출창구를 일원화하고 한 업체에게만 수입권을 줌으로써 수출 가격 및 수출물량 협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 시켰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출은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입각해서 수요·공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때 생산자 단체는 수출물량을 확보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해 주는 역할만 담당한다. 다시말하면, 수출창구는 일원화 시키되 수입업체는 다변화 시켜서 한 업체에게만 수입권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4) 제주산 감귤의 약용효과를 홍보한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잘 사는 나라일수록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바, 제주산 감귤의 성분을 약리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약용효과가 있음을 집중 홍보하면 수요창출도 기대된다. 선키스트의 경우 40lb박스당 20센트(약 154원)의 광고비용을 일률적으로 조합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돈은 미국내 광고비용으로는 물론이고 해외시장에서의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도 쓰여진다. 우리도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를 조성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홍보는 조합을 통해 판매한 감귤과 상인을 통해 판매한 감귤과의 차별화까지 유도할 수 있는 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

5) 수출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국내에서의 검역과 세관통관이 끝나서 선적만 이루어지면 수출이 다 끝난 것으로 간주해서 는 안된다. 공산품의 경우도 상품을 판매한 후에 A/S(After Service)를 철저하게 하는 회사의 제품을 믿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 처럼 제주산 감귤의 경우도 수출후에 철저한 사후관리를하여 해외 수입상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로부터 감귤을 수입해가는 업자들이 자국 내에서의 수입통관은 물론이요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까지도 도와줌으로써 우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수요처를,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장기적인 공급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다져 나아 가야 한다.

**6) 수출대상국의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인 교섭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면 대미 수출시 까다로운 검역 절차, 수출단지 조성시의 완충지대(Buffer Zone)설정, 날개 포장 등 비관세 장벽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 협상을 통해 날개 포장 문제가 해결되어 인력난으로 포장의 어려움은 해결되었으나 그외의 장벽도 정부에서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7) 새로운 시장개척 또는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제주감귤의 수출은 대부분 캐나다와 미국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수입국의 국내사정에 따라 수출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 감귤을 안정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해외시장에서의 감귤 수요의 기복을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항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수출컨테이너 전용 부두접안시설이 미비하여 검역은 제주검역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관은 부산세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제주세관을 통한 통관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항만시설의 미비로 제주항에서의 직수출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통관 등 수출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제주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인터넷을 통해 제주감귤의 가격 및 품질 등 수출을 위한 제반 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길은 인터넷으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의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계가 가상공간 안에서 1일 생활권으로 묶여 지구촌을 넘나들며 쇼핑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제주감귤도 세계적인 정보의 흐름에 편승하여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및 판매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10) 해외시장 개척단의 파견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제주감귤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등 수출확대가 가능한 국가를 중심으로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 유통시장조사, 수입국의 기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극적인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수입상·유통업체 등 구매사절단을 유치하여 현장안내 및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의 오렌지 생산자 단체인 SUNKIST는 생식용 감귤의 국내 및 국외판매, 가공품의 국내외 판매를 위한 시장축진의 주체가 되어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시장조사, 홍보활동, 물류기술개발,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전과정에 이르는 유통정보의 제공 등 모든 개별 마케팅 수단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매우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국내 및 국외시장축진활동의 주체는 감협이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11) 검역의 내실화 및 충실을 기해야 한다.

검역절차에 따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감귤의 관리 철저는 물론 검역의 내실화 및 충실을 기해야 한다. 1995년도에 미국으로의 감귤 수출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검역 문제이다. 검역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시장이 제일 까다롭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12) 해외시장 개척자금 및 수출보전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과실류 시장 개척자금을 운용하여 제주산 감귤의 해외시장 개척에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출손실 보전기금은 감귤의 수급불안으로 국내가격이 수출가격을 일정수준이상 상회 할 경우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13) 제주교역의 기능을 조정해야한다.

현재 제주교역은 수출입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제주교역의 역할을 수출입업무와 관련된 제반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주요 업무 내용은 수출촉진에 대한 기본방향정립과 해외시장 개척 및 무역거래의 알선, 지방 및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과당경쟁의 사전조정 및 시장정보의 교환, 수출입에 대한 업계에로 및 건의사항 수집, 품목별 수출증대방안 연구 및 신규 수출상품 발굴 등이어야 될 것이다.

14) 감귤진흥자조금을 공급자신용보증제도(SCGP: Supplier Credit Guarantee Program)로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

제주산 감귤을 수출하는 수출업체가 제주산 감귤을 수입하는 수입상들에게 직접 제공한 단기 금융(최장 180일)에 대하여 지자체가 그 일부를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수출업체들이 새로운 시장개척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험을 경감시켜 주며, 수입업자에게는 구매력을 높여 줄 수 있다.

V. 결 론

금년도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소비위축과 해질이 현상에 의한 대풍작의 예상과 함께 과거 '89년도에 우리가 경험하였던 최악의 가격 폭락이 재현될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99년도는 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고 수출에 적극적으로 임할 태세를 갖추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출이 감귤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금년에 76만톤을 생산할 경우 생과공급량은 약 63만톤 정도가 될 것이고, 여기서 수출을 1만톤 할 경우에 수출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할 때 농가수취가격에서 kg당 약 18원이 늘어난다. 이것은 전체농가에게 113억원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2만톤을 수출한

다면 kg당 농가수취가격이 35원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것은 전체농가에게 221억원의 소득창출효과가 있다. 3만톤 수출의 경우 kg당 53원의 가격상승효과와 함께 334억원의 소득창출효과가 있다. 이렇게 감귤 수출이 감귤농업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하다. 따라서 생산농가들의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도정의 공격적인 수출전략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주산 감귤의 수출확대를 위해 생산농가들도 우리 감귤도 수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절대로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단순 생산수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 생산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해외시장정보 활용체계를 조직화하여 해외시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의 지속적인 파견으로 수출시장을 캐나다와 미국위주에서 동남아시아, 유럽지역으로 다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감귤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생산농가의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은 물론이고 운송 및 수출입절차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통해 수출신용도를 증진 시켜야 한다. 아울러 대미 수출장벽의 완화를 위해서는 수출상품의 관리철저는 물론이고 정부의 외교적인 교섭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감귤의 수출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관해 알아보았다. 또한 제주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감귤산업의 수출확대 방안에 관해 알아보았다. 현재는 위기에 처한 제주 감귤산업을 살리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 감귤농가, 생산자단체, 정부, 연구기관, 학계가 모두 지혜를 모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외시장개척에 눈을 돌려야 할 귀중한 시점이다.

참 고 문 헌

- 강지용·고성보, "수입오렌지가 제주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주발전연구 1권1호, 제주발전연구원, 1997. 12.
- 강지용·김경택, "고품질 감귤생산 기술개발과 수출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제주농축수산생산가공 연구센터, 1996. 3.
- 고성보, "WTO체제하의 감귤수급안정정책의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97-P-1, 제주발전연구원, 1997. 12.
- 김경택, "UR타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이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 아열대농업연구 제13집, 1995.
- _____, "제주농업의 수출촉진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발전연구 제12집, 1996.
- 김경택·강지용,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제주감귤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도 연구 제13집, 1996.
-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각년도.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감귤유통처리 실태분석」, 각년도.
- 서귀포시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정보」 통권 제26호, 1995. 11.
- 일본식품유통연구회, 「1997년판 식품 생산 수입 소비」, 1997.
- Florida Department of Citrus, 「The Situation and Outlook for Brazil's Citrus Industry」, 1997.
- O'Connell, Neil, Karen Klonsky, Mark Freeman, Craig Kallsen, and Pete Livingston, 「Simple Costs to Establish an Orange Orchard and Produce Oranges」,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nd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Cooperating, 1995.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Citrus Fruits-1997 Summary」, 1997.
- _____, 「World Horticultural Trade & U.S Export Opportunities」, 1997.